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고단8245 판결 업무방해,모욕,공용물건손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

### 결

사건	2020고단8245 업무방해, 모욕,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사	최현철(기소), 오민재(공판)
판결선고	2021. 7. 7.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 유

#### 범죄사실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3. 0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메뉴판에 없는 계란 후라이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로부터 지금은 너 무바빠해줄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는 화가 나 "그럼 더 바쁘게 해 주겠다"고 말한 후 맥주를 가져다달라고 하여 가져다주면 이번에는 소주를 가져다달라는 식으로 계속하여 다른 무엇인가를 주문하는 식으로 괴롭히고, 음식을 테이블과 바닥에 쏟아 버리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와 순경 G을 향하여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씨발, 좆도 경찰 씨발놈들", "순경 씨발놈들 가난한 새끼들", "200만 원 밖에 못 버는 걸뱅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13. 05: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E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체포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경찰들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시가 미상의 대기석 의자 상단을 손으로 세게 뜯어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공용물건손상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